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ly 2024 Issue | Vol. 55

SPECIAL POINTS OF INTEREST

- 6월 NG 재정 적자 축소 —page 1-2
- 2029년까지 BSP 발행 디지털 화폐 가능성 —page 2
- SEC, 콘도텔 및 임대 풀 자산 판매 규제 시작 —page 3-4
- 한국 GDP 예상 외 축소, 금리 인하 가능성 증가 —page 4-5
- 경제 관리들, 2분기 6% 성장 예측 —page 5-6
- '강한 경제, FMI의 가장 큰 성과' —page 6-7

6월 NG 재정 적자 축소

July 25, 2024 | Beatriz Marie D. Cruz | BusinessWorld

국가 정부(NG)의 6월 예산 적자가 전년 대비 7.24% 감소했다고 재무부(BTr)가 수요일에 밝혔다. 이는 세입 징수가 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예산 적자는 전년의 P225.4억 페소에서 P209.1억 페소로 축소되었다.

전월 대비로는, 5월의 P174.9억 페소에서 19.54% 증가한 것이다.

6월 한 달 동안, 세입 징수는 전년 같은 달의 P267.3억 페소에서 10.93% 증가한 P296.5억 페소를 기록했다.

6월 세수는 3.37% 증가한 P249.3억 페소를 기록했으며, 이는 주로 국세청(BIR)이 P4.3억 페소의 세금 환급을 제외하고 P172.5억 페소로 4.71% 증가한 덕분이다.

관세청(BoC)의 징수액은 0.67% 증가한 P74.6억 페소를 기록했으나, 기타 부서의 징수액은 5.54% 감소한 P2.2억 페소를 기록했다.



Taxpayers line up at 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branch in Intramuros Manila to file their income tax returns, April 15. — PHILIPPINE STAR/ EDD GUMBAN

6월 비과세 수입은 80.6% 증가한 P47.2억 페소를 기록했으며, 이는 기타 부서의 수입이 158.57% 증가하여 P39.8억 페소를 기록한 덕분이다. 재무부의 수입은 6월에 31% 감소한 P7.4억 페소를 기록했는데, 이는 배당금 송금 감소와 재무부가 관리하는 기금에서의 수입 감소 때문이다.

한편, 6월 국가 지출은 전년 대비 2.62% 증가하여 P505.6억 페소를 기록했다.

"이 증가는 주로 공공사업과 고속도로부의 자본 지출 프로젝트와 국방부의 개정된 AFP 현대화 프로그램, 2025년 국가 및 지방 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의 준비 활동, 지방 정부 단위(LGUs)의 높은 국가 세금 할당 몫에 기인했다,"고 재무부는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소유 및 관리 기업(GOCCs)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대출의 감소로 완화되었다.

주요 지출(이자 지급 제외)은 6월에 2.3% 증가하여 P450억 페소를 기록했다. 이자 지급은 5.22% 증가하여 P55.6억 페소를 기록했다.

격차 확대

첫 6개월 동안 예산 격차는 전년의 P551.7억 페소에서 11.2% 증가하여 P613.9억 페소로 확대되었다.

6개월 간의 적자는 수입이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기간 동안의 P661.8억 페소 계획보다 7.24%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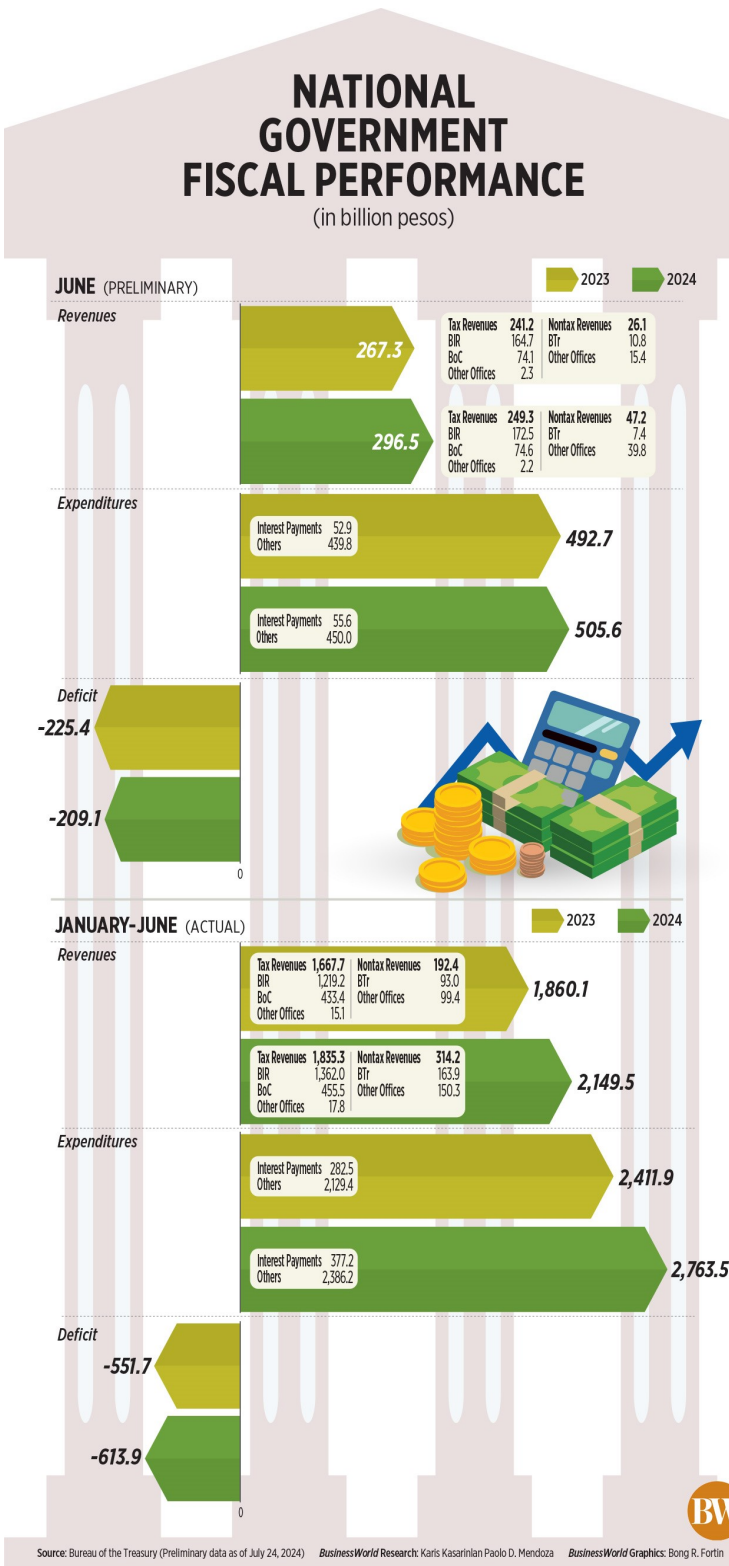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세입 징수는 전년의 P1.86조 페소에서 15.56% 증가한 P2.15조 페소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목표인 P2.08조 페소를 3.49% 초과한 수치다.

세금 수입은 총 수입의 85%를 차지하며, 6월 말 기준으로 10.05% 증가한 P1.84조 페소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상반기 목표인 P1.86조 페소보다 1.43% 낮은 수치다.

BIR(국세청) 징수액은 11.72% 증가하여 P1.36조 페소를 기록했으나, P1.4조 페소 목표를 2.92% 밑돌았다. [Cont. page 2]

6월 NG 재정 적자 축소

[Cont. from page 1]



관세청의 수입은 5.1% 증가하여 P455억 페소로, P442.6억 페소 목표를 2.91% 초과 달성했다.

상반기 비과세 수입은 전년의 P192.4억 페소에서 63.3% 증가한 P314.2억 페소를 기록했으며, 이는 P215.1억 페소 목표보다 46.10% 높은 수치다.

재무부 수입은 배당금 송금 증가, GOCCs로부터의 이자, PAGCOR(필리핀 오락 및 게임 공사) 수입에서의 NG 몫 증가 덕분에 76% 증가하여 P163.9억 페소를 기록했다.

재무부는 수정된 중간 연도 계획을 26.91% 초과 달성했으며, 연간 목표인 P187억 페소보다 P23.1억 페소 부족하다.

한편, 1월부터 6월까지의 지출은 전년의 P2.41조 페소에서 14.6% 증가한 P2.76조 페소를 기록했으며, 이는 상반기 목표인 P2.74조 페소보다 0.9% 높은 수치다.

주요 지출은 전년의 P2.13조 페소에서 12.06% 증가한 P2.39조 페소를 기록했다.

상반기 동안 이자 지급은 전년의 P282.5억 페소에서 33.55% 증가한 P377.2억 페소를 기록했다.

“6월에는 적자 축소가 개선되었지만, 상반기 적자는 전년 대비 확대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수입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중간 연도 목표 아래로 적자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일정 수준의 재정 절제를 나타낸다,”고 Security Bank Corp.의 수석 경제학자 로버트 단 J. 로세스가 Viber 메시지에서 말했다.

로세스는 정부의 도전 과제가 수입 증가와 지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예산 적자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서비스 회사 Reyes Tacandong & Co.의 수석 고문 조나단 L. 라벨라스는 정부가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제3차 국가 연설(SONA)에서 식별한 우선 프로그램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 인프라 및 재난 대비 프로그램이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은 어디서 올까? 재무부는 새로운 세금이 없다고 했다. 아마도 더 많은 차입에서 올 것이다,”고 그는 Viber 메시지에서 말했다.

NG의 차입 프로그램은 올해 P2.57조 페소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중 75%는 국내 자원에서, 나머지는 외국 자원에서 올 것이다.

리잘 상업 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L. 리카포트는 7월 15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원천세 징수가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세수 증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천세 징수는) 국가의 반복적인 세수를 증가시키고, 예산 적자를 축소하며, 전반적인 재정 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그는 말했다.

올해 정부는 예산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5.6%로, 즉 P1.48조 페소로 설정했다. 2023년 말 현재 예산 적자는 P1.51조 페소로, P1.499조 페소 상한선을 초과했다.

2029년까지 BSP 발행 디지털 화폐 가능성

July 25, 2024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은 2029년까지, 또는 BSP 총재 엘리 레몰로나 주니어(Eli Remolona Jr.)의 6년 임기 내에 도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할 계획이다.

BSP 부총재 마멘토 탕고난(Mamerto Tangonan)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의 도매 CBDC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아길라(Project Agila)가 개념 검증 단계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총재는 임기 초반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개념 검증을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것은 혁신적인 결제 수단이다. 사실 세계에는 스위스 국립은행(Swiss National Bank)을 제외하고는 도매 CBDC를 이미 출시한 중앙은행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

프로젝트 아길라는 2022년 12월에 시작된 두 단계의 프로젝트로, CBDC 기술을 더 잘 이해하고 도매 CBDC가 대규모 결제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SP는 지난해 7월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을 분산 원장 기술로 선정하여 파일럿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다.

BSP 지급 정책 및 개발 부서의 브리짓 로즈 메시나-로메로(Bridget Rose Mesina-Romero) 이사는 프로젝트 아길라(Project Agila)의 샌드박스 테스트 실험과 관련된 모든 발견 및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프로젝트 종료 시점인 연말까지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는 5월부터 6월까지 샌드박스 실험의 두 차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7주 만에 첫 번째 단계의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분산 원장 기술과 도매 CBDC의 토큰화도 시험해 보았다"고 그녀는 말했다.

BSP는 또한 CBDC 기술의 프로그래머블 기능을 평가할 예정이며, 이는 결제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고 자동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의 수를 줄이며, 결제 시스템의 백오피스 배치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탕고난(Tangonan)은 은행과 BSP가 CBDC를 어떻게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념 검증(단계)이 BSP와 은행 모두의 이해도와 지식을 충분히 높여서 출시 준비가 되었을 때만 우리는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그는 말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며, 우리는 이를 제공하고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은행들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고 비즈니스 사용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CBDC는 국가 회계 단위로 표시된 디지털 화폐 형태로,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부채이다. 도매 CBDC는 상업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에 발행되어, 은행 간 결제, 증권 거래, 해외 결제 등을 처리할 수 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7/25/2372672/bsp-issued-digital-currencies-likely-2029](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7/25/2372672/bsp-issued-digital-currencies-likely-2029)



Bangko Sentral ng Pilipinas
Governor Eli M. Remolona, Jr.

COURTESY OF BANGKO SENTRAL
NG PILIPINAS

SEC, 콘도텔 및 임대 풀 자산 판매 규제 시작

July 25, 2024 | Tyrone Jasper C. Piad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INQUIRER.NET

증권 거래 위원회(SEC)는 콘도미니엄, 호텔, 리조트, 기숙사 및 기타 임대 풀 계약이 포함된 부동산 자산의 판매에 대한 규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투자 수익을 제안하는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 기업 감독 기관은 임대 풀 거래에 대한 지침을 자세히 설명하는 2024년 제12호 메모랜덤 서클(Memorandum Circular 12 series of 2024)을 발표했다. [Cont. page 4]

SEC, 콘도텔 및 임대 풀 자산 판매 규제 시작

[Cont. from page 3]

이 지침은 임대 풀 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업체가 발행하는 투자 계약서, 참여 증명서, 이익 분배 계약서 및 기타 형태의 증권 발행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임대 풀 계약에서는 구매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단위를 구입하며, 이는 개발업체나 제3자 운영자에 의해 공동 관리된다.

이렇게 풀된 단위는 임대되며, 부동산 구매자들은 임대 수익에 대한 몫을 가지게 된다.

새로운 요구 사항

이러한 투자 계약은 증권 규제 법전(Securities Regulation Code)에서 설정한 정의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개발업체는 공공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러한 증명서를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제 당국은 밝혔다.

이는 주택 및 토지 사용 규제 위원회(Housing and Land Use Regulatory Board)에서 설정한 현재 요구 사항과 지방 정부 단위에서의 허가 절차 외에도, 임대 풀 자산을 판매하려는 개발업체는 이제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임대 풀 개발자는 19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제공하는 다른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SEC는 부동산 개발업체 또는 관리자가 SEC 회사 등록 및 모니터링 부서, 기업 지배구조 및 재무 부서, 집행 및 투자자 보호 부서, 법률 자문 부서, 일반 회계 부서(OG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등록자의 재무제표는 필리핀 재무 보고 기준(Philippine Financial Report Standards) 및 SEC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OGA의 검토를 받게 된다. 이후 신청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는 45일 동안 평가를 받게 된다.

등록자는 등록신청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증권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71283/sec-starts-to-regulate-sale-of-condotels-rental-pool-assets>

한국 GDP 예상 외 축소, 금리 인하 가능성 증가

July 25, 2024 | Jovee Marie N. de la Cruz | BusinessMirror

서울 - 한국 경제는 예상 외로 2분기에 축소되었으며,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급격한 축소를 기록한 것으로, 소비 지출의 감소가 수출 호황을 저해하며 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4월-6월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으며, 이는 로이터 조사에서 예상한 0.1% 증가를 밀도는 수치다. 이는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급격한 감소폭이다.

악한 경제 데이터와 6월에 나타난 소비자 물가 압력 완화는 일부 분석가들로 하여금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앙은행은 이번 달에 주요 기준 금리를 15년 만에 최고 수준인 3.50%로 유지했으며, 물가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정책 전환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데이터가 국내 수요가 더 악화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GDP 수치의 약화는 금리 인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전망에 더 많은 확신을 준다”고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보고서에서 말했다. “우리는 중앙은행이 10월부터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8월의 금리 인하 위험이 현재 커졌다.”

그러나 다른 분석가들은 한국은행이 다음 분기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며, 대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움직임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시장은 9월에 Fed의 금리 인하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

한국 원화는 0153 GMT 기준으로 달러에 대해 0.45% 하락했으며, KOSPI 주가 지수는 아시아 전역에서 광범위한 매도세 속에 1.9% 하락했다.

[Cont. page 5]



한국 GDP 예상 외 축소, 금리 인하 가능성 증가

[Cont. from page 4]

이 성과는 첫 분기에 1.3% 성장한 결과를 이어가며,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였다. 신승철 한국은행 통계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가 올해 2.5% 성장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는 2.3% 성장했으며, 이는 2024년 첫 분기의 3.3% 증가에 비해 낮은 수치다.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모두 전분기 대비 각각 0.2%와 1.1% 감소했으며, 수출은 0.9% 증가했다.

약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석가들은 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시티그룹(Citigroup) 경제학자 김진욱은 경제가 전분기 대비 0.3%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한국은행이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지만, 상승하는 집값이 이 전망에 대해 매파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 정책에 있어, 서울 지역의 상승하는 집값이 비둘기파적인 위험 요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는 말했다. “주택 시장이 다시 안정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므로 10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world/2024/07/25/610240/south-korean-gdp-unexpectedly-shrinks-boosting-rate-cut-chances/](https://www.bworldonline.com/world/2024/07/25/610240/south-korean-gdp-unexpectedly-shrinks-boosting-rate-cut-chances/)

경제 관리들, 2분기 6% 성장 예측

July 23, 2024 | Darwin G. Amojelar | Manila Standard



정부의 경제 관리들은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강력한 소비자 지출에 의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6%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재무부 장관인 랄프 렉토가 국가연설 후 포럼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입니다. 가계 소비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높은 금리와 정부 소비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과 신용 카드에서 보이는 것에 의해 지원받고 있습니다.”라고 렉토가 덧붙였다.

렉토 장관은 또한 필리핀 중앙은행(BSP) 통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가 올해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이는 “우리의 성장을 지원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은 앞서 기준금리를 6.50%로 유지했으며, 하룻밤 대출 금리는 6.0%, 하룻밤 예금 금리는 7.0%로 설정했다.

국가경제개발청(NEDA) 장관인 아르세니오 발리사칸은 첫 분기 5.7% 성장에 이어 2분기에는 6% 확장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목표의 최소 하단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발리사칸 장관이 말했다. 정부는 2024년 GDP 성장률 목표를 6%에서 7%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렉토 장관은 필헬스(PhilHealth)와 필리핀 예금 보험공사(Philippine Deposit Insurance Corp.)와 같은 정부 소유 및 관리 기업(GOCCs)이 보유한 미사용 및 유휴 자금을 활용하면 경제 성장을 “대략 0.8%”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가 올해 6%에서 6.5% 성장률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렉토 장관은 GOCCs의 미사용 자금을 정부의 사회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활용하면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헬스와 PDIC의 미사용 자금이 대략 2천억 페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렉토 장관은 2023년의 낮은 빈곤율에 고무되어 빠른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인적 자본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3년 빈곤율이 15.5%로 낮고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Cont. page 6]

경제 관리들, 2분기 6% 성장 예측

[Cont. from page 5]

“이 수치들은 2023년 목표치보다도 낮은 수치로, 우리의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으며, 2028년 대통령 임기 말까지 9%의 단일 자릿수 빈곤율 달성에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이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가계 소득 및 지출 조사(FIES)에 따르면, 필리핀의 빈곤율은 2021년 18.1%에서 2023년 15.5%로, 그리고 팬데믹 이전의 2018년 16.7%에서 감소했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45만 명의 필리핀인이 빈곤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2023년 빈곤율에 대한 정부의 개발 목표인 16.0%에서 16.4% 사이보다도 낮다.

한편, 가구의 빈곤율은 2021년 13.2%에서 2023년 10.9%로 감소했으며, 약 50만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 이 수치는 또한 2018년 팬데믹 이전의 12.1%보다 낮다.

국가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17.9% 상승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3.8% 증가를 초과했다.

[Source: 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475475/economic-managers-predict-6-growth-in-second-quarter.html](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475475/economic-managers-predict-6-growth-in-second-quarter.html)

‘강한 경제, FMJr의 가장 큰 성과’

July 23, 2024 | Jovee Marie N. de la Cruz | BusinessMirror

필리핀 경제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행정부가 제2년차 동안 이룬 “최고의 업적”이라고 페르디난드 마르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이 화요일에 말했다.

“국내외의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 경제를 재활성화하고 많은 필리핀인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며 상업을 촉진시켜 필리핀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라고 로무알데스는 말했다.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놀라울 따름이며, 행정부의 인프라 개발 및 사회 개선 프로그램은 일반 필리핀인들이 국가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보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공 필리피나스 캠페인의 혜택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최근 몇 년간 이룬 발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은 필리핀이 아시아 개발 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 기관에 의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인정받았다고 언급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지도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과는 장관적이며, 이는 전 세계 많은 금융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성장은 지역 동료 국가들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라고 로무알데스는 말했다.

2024년 첫 분기 동안 경제는 5.7% 성장했으며, 이는 베트남과 같은 수준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주요 경제국들을 초과하는 수치다. 이 성장은 산업의 확장(4.1%에서 5.1%로)과 수출의 회복(1.1%에서 7.5%로)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로무알데스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국가의 재정 관리가 큰 개선을 보였고, GDP 대비 적자 비율 감소와 정부 수입 증가가 마르코스 행정부의 건전한 경제 정책의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카마리네스 수르 하원의원 루이스 레이몬드 비야푸에르테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국가 경제의 회복 건강 신호를 언급하면서 겸손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며, “실제 IMF는 필리핀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보고 있으며, 올해 6%의 GDP 확장과 2025년에는 6.2%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7]



President Ferdinand “Bongbong” Marcos, Jr. during his third State of the Nation address

‘강한 경제, FMJr의 가장 큰 성과’*[Cont. from page 6]*

IMF는 최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인도만이 필리핀보다 더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필리핀의 GDP 성장률 전망은 7.5%라고 밝혔다. 비야푸에르테는 2024년 필리핀의 성장 전망이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5%, 말레이시아의 4.4%, 카자흐스탄의 3.5%, 이란의 3.3%, 태국의 2.9%, 이집트의 2.7%, 한국의 2.5%, 파키스탄의 2%, 사우디아라비아의 1.7%, 일본의 0.7%를 초과한다고 말했다.

ADB를 인용하여 비야푸에르테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2024년과 2025년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바오에서는 소비자 단체가 월요일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서 희망을 본 후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도전했다.

다바오 델 노르트에 본사를 둔 다바오 소비자 운동(DCM)의 조정자인 라이언 암퍼는 자신의 조직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서 “2001년 전력산업개혁법(Epira)을 검토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하고 경제 계획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맞아떨어지는 점에서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약속처럼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비즈니스미러에 말했다.

“필리핀 사람들은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 준비되어 있으며, 말만 하는 것은 부족하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하기 전 DCM은 필리핀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최우선적으로는 쌀과 기타 기본 생필품의 가격 상승이 가계 예산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많은 가정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가격을 안정시키고 낮출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며, 필수 품목이 계속해서 저렴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DCM은 덧붙였다.

암퍼는 DCM이 말라카냥이 “가격을 낮추고 가계의 즉각적인 재정 압박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예를 들어 지역 농업 생산 증가 및 공급망 개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지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바오 델 노르트에서 북부 다바오 전력 협회(Nordeco)의 비효율적인 서비스로 인한 전력 위기를 해결할 필요가 시급하다. 잦은 정전과 불안정한 전력 공급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업과 경제 활동에도 방해가 된다. DCM은 전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원한다. 일관된 전력 공급은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With Manuel Cayon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7/23/strong-economy-fmjrs-biggest-achievement/](https://businessmirror.com.ph/2024/07/23/strong-economy-fmjrs-biggest-achievement/)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